

상품들과 “시적인 것”

— 1980년대 박노해·황지우·장정일의 시와 상품체험의 관계에 대하여

金水林*

- | | |
|---------------------------------|---------------------|
| 1. 프롤레타리아의 밤과 상품들의 백일몽 | 3. 상품들의 수다, 상품들의 침묵 |
| 2. 상품체험과 “시적인 것”
—축적, 포위, 호명 | 4. 결론을 대신하여 |

• 국문초록

1980년대 노동문학과 운동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첫 등장은 1983년 『시와 경제』라는 무크지 2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같은 책에는 황지우 또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 시인 장정일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역시 무크지를 통해 등단하였고, 이 세 사람은 1년 가량의 간격을 두고 자신들의 첫 시집을 출간하였다. 이 세 사람의 시인들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사회적/문학(사)적 맥락과 담론들 속에서만 논의되고 해석되어왔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활동 시기, 활동 공간(무크지 운동과 같은 기존의 제도 바깥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접성이 존재했다.

박노해, 황지우, 장정일 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무나”시를 쓸 수 있고, “아무거나”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황지우의 표현대로라면 (기존 문학의 한 양식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시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했던 “시적인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상품체험과 밀

* 성균관대 강사

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논문이 1차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작업에서 엿볼 수 있는 “시적인 것”과 상품체험의 관계이다.

최근 10여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1970~80년대 노동자 문학운동/글쓰기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프롤레타리아의 밤”에 관한 랑시에르의 논의에서 공통의 정거장을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에서 다룬 세 사람의 시인들 또한 노동자/시인, 시/비시(非詩)와 같은 기존의 위계질서에서 문화가 분배되는 방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 “프롤레타리아의 밤”의 자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서 “시적인 것”과 상품체험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1980년대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은 ‘상품들의 백일몽’과 공존 혹은 중첩되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 시적인 것, 상품, 상품화된 노동력,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년대 노동문학

I. 프롤레타리아의 밤과 상품들의 백일몽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 박노해가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한 것은 1983년에 출판된 『시와 경제』 제2집을 통해서였다. 『시와 경제』는 같은 이름의 동인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출판된 비정기적 간행물이었다. 흔히 무크(MOOK: Magazine+Book의 일본식 조어)라고 불리는 형태의 출판물, 1980년대 한국의 출판문화 운동의 한 형식으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비정기적 간행물의 지면을 통해서 박노해가 그 이름과 작품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시다의 꿈」을 비롯해 모두 여섯 편의 작품명이 박노해라는 이름과 함께 적혀있는 목차에서는 또 하나의 익숙한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황지우”. ‘시와 경제’ 동인 중의 한 사람이었고, 『시와 경제』 1집에서부터 작품을 수록했던 황지우는 제2집에서도 「徐伐·셔벌·셔벌·서울·SEOUL」을 비롯 모두 5편의 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황지우의 첫 번째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같은 해인 1983년 10월에, 그리고 박노해의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이 1984년 9월 25일에 출판되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역사적 필연이었을지 한눈에 단언하기 힘든 이 장면은 그동안 그다지 언급된 적도 없었고, 다루어졌던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1980년대 노동문학과 운동을 대표/상징하는 노동자 시인의 필명이 흔히 “해체시” 같은 표현으로 규정된 채 1980년대 문학에서 가장 전위적이고 극단적인 실험을 거듭했던 시인의 이름과 함께 놓여있는 이 장면을 주목한 (거의 유일한) 글에서 김형중은 그 의의를 이렇게 적고 있다.

박노해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로 요약되는 1980년대식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을 가장 첨예하게 지시한 주인 기표라 할 만했다. 고졸 학력에 등단 절차도 거치지 않은 노동자 시인, 노동의 비가시적 공간을 뚫고 나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노동자들의 ‘소음’을 ‘말’로 바꾸어 버린 자, 그러니까 그가 연출한 것은 한국 문학장에서 뭇을 나눠 갖지 못했던 이들이 극적으로 자신들의 뭇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장관이었다.¹⁾

1) 김형중, 「응답하라, 1983-박노해, 황지우, 백낙청의 시대」, 『문학과 사회』 2017년 봄호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문학과지성사, 63면.

박노해가 아무나 시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황지우가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장소, 그 장소는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이 만든 장소가 아니라, 그 두 잡지가 창출해내는 데 실패한 장소다. 황지우와 박노해가 무크 지면에서 만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²⁾

위에 인용된 글에서 박노해와 황지우의 시쓰기는 그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몫을 재분배하기 위한 전복을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문학의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랑시에르의 논의를 참고하고 인용하며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언급은 최근 10여년간 1980년대 노동자들의 글쓰기/문학 운동에 관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루스 배러클러프의 『여공문학—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에 대한 서평에서 이해령은 “자크 랑시에르의 『프롤레타리아의 밤』에 대한 적극적 참조가 수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최근 연구들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 “앞의 위상학과 분배체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1980년대의 노동자/민중의 글쓰기 운동과⁴⁾ “읽고 쓰는 노동자의 분출”은 “노동자/지식인, 공장/대학, 프롤레타리아/부르주아의 경계에 도전하는 문화적 사건이었다.”⁵⁾ “이는 곧 공장에 국한된 노동자의 자리와 정치와 예술로 표상되는 ‘공통적인 것’을 점유한 철학자-시인의 자리 사이의 분할을 해체하는 작업과도 같은 것이다.”⁶⁾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동자/민중의 글쓰기 운동은 “‘산업노예’나 ‘돼지’”가 “‘누구든지 써낼 수가 있다’는 이 쓰기에 대한 자신감”⁷⁾을 획득함으로써 노동의 시간으로 규정된 낮, 노동력의

2) 김형중, 앞의 책, 171면.

3) 이해령, 「“여공문학” 또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밤」, 『상허학보』 53, 상허학회, 2018, 263~265면 참조.

4) 천정환, 「서발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37면.

5) 이해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16, 315면.

6) 장성규,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8면.

7)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2014년 봄호(통권 106호), 역사비평사, 2014, 200면.

재생산을 위한 여가의 시간으로 할당된 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해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매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노해가 아무나 시인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말의 문화정치적인 의미는 축자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노동자/시인의 경계를 의문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이러한 구별을 조직하는 위계질서를 위협한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랑시에르를 참고하며 1980년대를 전후로 한 노동자 글 쓰기 운동에 대한 연구 작업들과 박노해와 황지우의 우연치 않은 마주침에 주목한 비평가가 언급한 “아무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써낼 수가 있다”는 말의 공통분모처럼 보인다.

“박노해가 아무나 시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황지우가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장소”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명쾌한 요약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간과된 것이 있다. 박노해는 단순히 아무나 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언어, 일상생활, 무엇보다도 그들의 노동행위와 노동하는 신체라는 비(非)-시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었던 대상이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황지우와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황지우가 “낙서도 대중문화도 악보도 벽보도 모두 시가 되는 세계를 지향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박노해는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어화했다.

10년 걸려 목메인 기름밥에
나의 노동은 일당 4,000원
오색영롱한 쇼윈도엔 온통 바겐세일 나붙고
지하도 옷장수 500원짜리 쉰 목청이 찾아들고
내 손목 이끄는 밤꽃의 하이얀 미소도
50% 바겐세일이구나

에라 씨팔,

나도 바겐세일이다
3,5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으니 팔려가라
바겐세일로 바겐세일로
다만,
내 이 슬픔도 절망도 분노까지 함께 사야돼!
— 박노해, 「바겐세일」 일부⁸⁾

『시와 경제』 2집에 「시대의 꿈」과 함께 실려 있는 이 시에서,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박노해가 독자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으로서 존재하는 노동자 자신의 모습이다. ‘노동’이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 이 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이라는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대신에 상품화된 노동력을 소유하고 판매하는 존재로서 혹은 상품 그 자체로서 표현되어 있다. “일당 4,000원”의 저임금 노동자는 “오색영롱한 쇼윈도” 앞에서 진열장 속의 바겐세일 상품들과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고, 이 시선의 중복 속에서 「바겐세일」의 화자는 노동자인 자기 자신과 팔리지 않는 바겐세일 상품의 동일시를 경험하고 또 이야기한다. 박노해의 시에 대한 평가는 “노동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뿌리박”⁹⁾은 ‘현장의 생생함’을 강조해왔는데, 그러한 “노동현실” 혹은 “생생”함이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체험들로 분석될 수 있다. 「바겐세일」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품화된 노동력의 경험과 노동자가 상품이라는 낯선 사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경험—이것이 박노해의 “노동현실”이고 “아무거나”인 셈이다.

다시 화제를 전환해보자. 황지우가 “아무거나”, 이를테면 “낙서도 대중문화도 악보도 벽보도 모두 시가 되는 세계를 지향했다”는 것은—틀린 말은 아니지만—과연 충분한 언급일까? 가령 박노해의 등단작들과 함께 『시와 경제』 2집에 발표된 다음 작품의 경우를 보자.

8)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9.25., 72~73면.

9) 채광석, 「노동현장의 눈동자」(박노해, 앞의 책, 151면)

고 피 흘리고, 종로 2가 지하철 입구의 戰警 버스도 폭삭, 안국동 화방 유리창은 와장창, 방사능이 지하 다방 '88올림픽'의 계단으로 흘러내려 가고, 화신 일대가 정전되고, 화염에 휩싸인 채 사람들은 아비규환, 혼비백산, 조계사 쪽으로, 종로예식장 쪽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쪽으로, 우미관 뒷골목 쪽으로, 보신각 쪽으로 그러나 그 위로 다시 갤러그 3개 편대가 내려와 5천 메가톤급 고성능 핵미사일을 집중 투하! 집중 투하!

짜 자 잔!

GAME OVER

한다면,

— 황지우, 「徐伐·셔블·셔블·서울·SEOUL」(일부)¹⁰⁾

귀가 길에 있는 서울의 어느 중산층 가족의 가장인 남성—사무직-노동자는 휴대용 라디오와 길거리에 가득한 상점들이 쉴 새 없이 제공하는 광고 이미지와 미디어 이미지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장만섭”이라는 그의 이름은 한 개인의 고유성을 의미하는 기표라기보다는 신문 기사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언어가 전달하는 사물화된 정보의 형태로 그를 재현한다. 이 작품은 『갤러그(Galaga:ギャラガ)』(1981)에 등장하는 외계 우주선들이 전자오락실의 게임기 화면에서 현실로 튀어나와 서울을 초토화시키는 묵시록적인 상상력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결말은 역설적이다. 상품-이미지와 상품-이미지의 이미지(광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재생산하는 미디어-이미지(예를 들어 신문 기사의 언어)들에 포위되어 있는 중간 계급 남성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세계는 결말에 가서 파국에 이르지만, 그러한 파국마저도 전자오락이라는 새로운 ‘문화상품’이 제공하는 백일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품-이미지들의 압도적인 포위를 완성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중간 계급의 일상세계는 파괴되지만 그와 동시에 상품-이미지들의 포위와 봉쇄는 완성된다.

인용된 박노해와 황지우의 작품들에서 상품 앞에 놓여있거나 상품에 둘러싸여 있는 경험이 공통의 감각으로서 침전되어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황지우가 자신의 시론에서 내세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상품 혹은 상품과의 관계 속에서 “시적인 것”을 포착해내었고 무엇보다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10) 황지우, 『새들도 世上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10.5., 68~71면.

그것을 다루었던 것이다.¹¹⁾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980년대 한국의 “프롤레타리아의 밤”은 ‘상품들의 백일몽’과 함께 맞붙어 있었다. 박노해, 황지우 그리고 장정일 등 지금까지 전혀 다른 담론과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온 시인들은 왜 상품 혹은 상품과의 관계를 “시적인 것”으로서 포착하려는 시도를 공통되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것은 왜 하필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졌던 것일까? 그러한 시도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결국 별다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힘없이 사라져 버린 듯이 보인다.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혹시 우리가 상품과 시적인 것, 그리고 언어와 맺는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이러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박노해, 황지우, 장정일의 시가 상품과의 관계 혹은 상품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II. 상품체험과 “시적인 것” — 축적, 포위, 호명

‘시적인 것’은 ‘어느 때나, 어디에도’ 있다
— 황지우¹²⁾

상품형식은 비단 독립적으로 사용가치의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과정에
외적으로 결합되는 데에만 그치질 않고, 필연적으로 사회의 생의 표현 전체에
삼투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이것을 변형시킨다”
— 게오르크 루카치¹³⁾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이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11) 물론 여기에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상품체험’은 동일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2장에서 상론.

12) 황지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한마당, 1986, 16면.

13) 게오르크 루카치 저, 박정호·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2005(4판), 182면.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원갓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졸드만

고층 사우나빌딩 앞엔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살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흐르고
프로야구장엔 함성이 일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우고 쫓빠져라 일할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년놈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선진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ET가 되어
얼나간 미친 놈처럼 해매이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일부¹⁴⁾

「손무덤」의 화자는 프레스에 손이 잘려나간 동료 노동자를 위해 종로의 대형서점들을 돌아다니지만 “엠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 눈 까뒤집어도 없”다. 서점 밖으로 나온 화자는 수 많은 상품-이미지들이 전시된 세계에 둘러싸이게 된다.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는 값비싼 자동차들과 수입 상품의 전시장이며 거리 군중들은 걸어다니는 의상 진열대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프로야구”), 대중가요, 영화(“ET”)와 같은 문화상품들과 수 많은 미디어에 의해 재생산되는 상품-이미지들에 의해서 「손무덤」의 화자는 말 그대로 포위되어있다. 노동자는 이 상품들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지만—서점에는 노동자를 위한 책도 없고, 거리에는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없다—동시에 이 상품들의

14) 박노해, 앞의 책, 84~85면.

막대한 축적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구속되어 있다.

상품들의 거대한 축적물에 둘러싸인 경험에 국한해서 본다면, 「손무덤」은 앞에 인용된 황지우의 작품과 흡사한 방식으로 “시적인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상품과 광고와 미디어로 포화된 “종로 거리”가 있고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뿜어내는 이미지들이 거기에 들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非-시적인 것으로서 간주되어왔던 광고 문구와 대중 가요 가사가 “시적인 것”으로서 포착되어 스크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시적인 것”은 ‘어느 때나, 어디에도’있다”는 황지우의 주장은 일상의 세계가 축적된 상품들에 의해 포위어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과 떼어놓고 이해하기 곤란하다.

버스 정류장 앞 서점 진열대에는 원색으로 분칠한 각양 각색의 여성지들과 취미·레저·건강 잡지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다. 그것도 모자라 4절지로 된 잡지 내용 광고들이 출입문 전체를 발라 놓았다. 나는 그것들을 안 보려고 해도 그것들이 보인다. 그것들이 보인다고보다 그것들이 무슨 발광체처럼 나의 눈을 관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때 그 사람, 심수봉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의 눈을 관통한다. ‘김자옥 최백호 이별 이후의 이모저모’가 나의 눈을 관통한다. ‘7년만에 성낙현 의원이 고백한 여고생 스캔들’이 나의 눈을 관통한다. (……)

버스에서는 유행가들이 나의 귀를 관통한다. 귀는 눈에 비해 훨씬 덜 선택적이며, 나는 이 소리의 폭행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다. 씨엠 송들이 나를 관통하고, ‘못다 핀 꽃 한송이’가 나를 관통하고, ‘슬픔의 심로’가 나를 관통한다. 최근에 자주 들리는 ‘아 대한민국’은 나에게 웬지 거부감을 준다.(…중략…) 나는 강력히 거부하면서도 그것의 어떤 마술적인 가락을 마음 속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인용자 강조)¹⁵⁾

이 인용문에서 황지우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이미지들이 자신의 신체 감각을 포위하고 침범하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작품 「徐伐·서벌·서벌·서울·SEOUL」에 대한 부가적인 서술이면서 동시에 박노해의 「손무덤」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처럼 읽히기도 한다. 삶이 “상품의 방대한 집적”에 포위되어

15) 황지우, 「마취제로서의 대중문화」, 앞의 책, 272~273면.

있다는 상황에 대한 경험은 장정일의 경우에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언젠가 그 날이 와서 몇 십만 메가톤의 중성자탄을 터트린다해도
사십일간의 홍수가 다시 진다해도 끄덕하지 않을 지하도
나는 느릿하게 지하도의 끝과 끝을 거닌다
검둥개라도 한 마리 끌고다녔으면 그 참 멋진 산보일 것인데.
슬금슬금 윈도우를 훑쳐보는 나에게 어린 점원들이
들어와 구경하시라고도 하고 어떤 걸 찾으세요 묻기도 한다
각종 의류며 생활용품 그리고 식당에서 화장실까지 거의 완벽한 지하도
그러면 이런 공상을 해보기도 한다. 이곳에서 여자 만나
연애하고 아이 낳고 평생 여기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깥에서 비가 그쳤는지 어떠한지 도무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바깥의 기상을 알 수 없는 여기는 무덤인가
장신구며 말이며 몸종과 비단 옷감이며 씨앗단지들
그 많은 부장품을 함께 매장한 여기는 고대인의 무덤인가
— 장정일, 「지하도로 숨다」 일부¹⁶⁾

박노해가 「시다의 꿈」을 발표한 이듬해에 무크지 『언어의 세계』 제3집으로 등단한 장정일은 시인으로서보다는 소설가로서 1990년대의 문학 담론들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자신의 시쓰기를 노동으로, 자신의 시는 쓸모없는 상품으로 간주했으며 중졸 학력의 독학자(獨學者)였던 시인 장정일은¹⁷⁾ 누구 못지 않게 “아무나 시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아무거나 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박노해, 황지우 등과 함께 1980년대의 자장 안에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16) 장정일, 『햄버거에 대한 명상』, 민음사, 1987.3.30. 65~66면.

17) 예를 들어 「굽은 등」이라는 시에서 장정일은 릴케의 묘비 문구를 패러디하며 이렇게 적고 있다.
“책을 읽고/글을 쓰는 일에/내 등은 굽었고나./장미도/모순도/스텐드 불빛 아래/한 사람이 잠들어 있었던 것도 아닌/내 노동이며 !”(장정일, 『주목을 받다』, 김영사, 2005, 8면).

장정일의 경우에 있어서 상품들과 삶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박노해, 황지우의 경우보다 더욱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 「지하도로 숨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상품들에 둘러싸인 세계 속에서 삶을 상상하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들에 의해 완벽히 포위됨으로써 비로소 삶을 꿈꾸게 된다는 점에 있다. 「삼중당 문고」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삼중당 문고”라는 값싼 교양 상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50원 했던 삼중당 문고”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때도, “싸움질을 하고 피에 묻은 칼을 씻”을 때에도, 소년원에 갇을 때에도, 서점과 레코드점에서 일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에도, “계대 불문과 용숙이와 연애”를 할 때에도 그의 삶을 에워싸고 있으며, 여기에서 화자의 삶과 「삼중당 문고」라는 상품을 서로 엄밀하게 분리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¹⁸⁾ 「삼중당 문고」는 삶의 국면의 “어느 때나, 어디에도” 있다. 그것은 학교 바깥의 독학자가 탐닉하는 교양과 지식의 매개체이며,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이 된 상품이며, 동시에 “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시인의 삶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다.

나는 시를 쓸 때, 시를 추구하지 않고 ‘시적인 것’을 추구한다. 바깥말해서 나는 비시(非詩)에 낮은 포복으로 접근한다. ‘시적인 것’은 ‘어느 때나, 어디에도’ 있다. 물음표 하나에도 있고, 변을 보면서 읽는 신문의 심인란(尋人欄)에도 있다. 풀잎, 깡통, 라면 봉지, 콩나물을 싼 신문지, 못, 벽에 저린 오줌자국 등 땅에 버려진 무심한 사물들에까지 낮게 낮게 엎드려 다가가 나는 본다. 그것들의 관계를 나는 응시한다. 토크를 들이미는데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아침나절의 버스 안내양과 나의 손 사이에서 나는 무한히 ‘시적인 것’을 본다.¹⁹⁾

많이 인용된 만큼이나 유명한 위의 문장들에서, 황지우는 “토크를 들이미는데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아침나절의 버스 안내양과 나의 손 사이에서 나는 무한히 ‘시적인 것’을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언급은 그의 첫 시집에 수록된 「(95)청량리—서울대」라는 작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토크를 들이미는데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아침나절의 버스 안내양과 나의 손 사이에서” 그가 보았다는 “무한히 ‘시적인 것’”

18) 장정일,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11~14면.

19) 황지우, 앞의 책, 16~17면.

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기껏 토큰 한 개를 내미는 나의 무안함을
너는 모르고
줄고 있는 너의 야근과 잔업을
나는 모르고
간밤에 뺨스 속에 손 한번 넣게 해 준 값으로
만원을 가로채 간 년도 있지만
지금 내가 내민 손 끝에 光速의 아침 햇살, 뺨뺨하게 밀리고 있구나
참 멀리서 왔구나, 햇살이여, 노곤하고 노곤한 지상에,
그 햇살 받으며 빨간 모자, 파란 제복,
한남운수 소속, 너의 이름, 김명희
너의 가슴에 단
'친절·봉사'의 스마일 마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나를
모성의 누이여 용서하라
나는 왜 이러는지 세상을 자꾸만
내려다보려고만 한다 그럴 적마다
나는 왜 그러는지 세상이 자꾸만
짱하고, 증오심 다음은 측은한 마음뿐이고,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수평이 아니다 승강구 2단에 서서
줄고 있는 너를 평면도로 보면
아버지 실직 후 병들어 누움,
어머니 파출부 나감,
남동생 중3, 신문팔이
生計는 고단하고 고단하다
뻘하다
빈곤은 충격도 없다
그것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의 무능 때문이다?
너의 어머니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이다?
네가 재능도 없고 지능이 없어서이지 악착 같고 통박만 잘 돌려봐?
그렇다고 네가 몸매가 좋나 얼굴이 썩시하나?

TIME誌에 실린 전형적인 한국인처럼, 몽고인처럼
코는 납작 광대뼈 우뚝 어깨는 딱 벌어져 궁둥이는 펴져 키는 작달
아, 너는 육먹은 한국 사람으로 서서
줄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런 너의 평면도 앞에서
끝내는 나의 무안함도, 무색함도, 너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
독이며
나의 유사-형제에도, 너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속죄는 못된다.
그걸 나는 너무 잘 안다.
그걸 나는 금방 잊는다.
— 황지우, 「(95) 청량리—서울대」 全文²⁰⁾

청량리에서 서울대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번호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작품에
서 지식인 남성인 화자와 줄고 있는 버스 안내양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들
어 있다. 우선 거기에는 남성/여성, 지식인/하층계급 서비스직 노동자, 서비스 상품
판매자/구매자와 같이 불평등한 위계 질서가 가로놓여있다. (“아무리 보아도/그것은
수평이 아니다”) 이 불평등한 위계질서와 연관된 하층계급 여성에 대한 지식인 남성
의 편견, 연민, 위선과 위악, 죄의식, 자기혐오와 자기반성, 그리고 도덕적·정치적
알리바이 만들기 같은 것들도 준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시의 지식인 남성 화자와 버스 안내양 사이는 보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지식인 남성 화자와 버스 안내양 사이에 접대부(혹은 매춘부)가 있다. 화자
는 줄고 있는 버스 안내양에게 버스 토큰을 내밀다가 “간밤에 뺨스 속에 손 한번
넣게 해 준 값으로/만원을 가로채 간 년”을 떠올린다. 이 연상 속에서 서비스 상품의
판매자라는 점에서 접대부와 버스 안내양은 서비스 상품의 구매자인 “나”에게 등치
되거나 호환될 수 있을만큼 근접한 대상으로서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 “TIME誌”와 같은 서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이미
지는 물론 그러한 서구 미디어 지식상품의 구매자로서의 경험이 또 하나의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줄고 있는 버스 안내양을 위에서 “평면도”처럼 내려다보는 지식인

20)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12~114면.

남성 화자의 시선은 그가 신문가판대나 서점의 매대(賣臺)에서 “TIME誌” 표지를 훑어 내려가는 시선과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황지우의 지식인 남성 화자와 버스안내양 사이에는 적어도 두 개의 상품과 상품체험, 즉 매춘부와 미디어-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경험이 개입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나”와 버스안내양 사이에는 상품형식이 보이지 않는 매개자로서 끼어들어 있다. 황지우가 단호한 어투로 “버스 안내양과 나의 손 사이에서 나는 무한히 ‘시적인 것’을 본다”고 말했을 때 그 “시적인 것”은 상품체험과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만큼 겹쳐있다. 그리고 황지우의 화자는 버스 안내양을 바라보며 서 있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상품형식과 상품체험 앞에 멈추어 선다.

III. 상품들의 수다, 상품들의 침묵

우리들이 만나기 위해 더는 약속이 필요치 않다, 우리들은 약속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예민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 장정일, 「약속 없는 세대」 일부²¹⁾

마르크스가 적절한 기회에 농담 삼아 언급하는 상품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왕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 손과 집에 밀착하고 싶은 구매자를 발견하기 때문이다.²²⁾

보들레르의 산문시와 거기에 등장하는 거리산보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벤야민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의 군중과 거리산책자/시인 사이에 일어나는 “대도시의 종교적 도취”에 대한 서술의 일부분이다. 보들레르는 시인/산책자가 대도시의 군중 속에서 “육체를 찾아 떠도는 혼처럼 그는 제가 원하는 때에 다른 사람의

21) 장정일,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9, 52면.

22) 발터 벤야민 저, 김영옥·황현산 역,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4권, 도서출판 길, 108면.

인격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벤야민이 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인/산책자 이면서 동시에 “상품 그 자체”이다.

“감정 이입”은 거리산보자가 군중 속에서 탐닉하는 도취의 본질 그 자체이다. 시인은 마음대로 자기자신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될 수 있는 이 비할 데 없는 특권을 즐긴다. 육체를 찾아 떠도는 혼처럼 그는 제가 원하는 때에 다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간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의 인격이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자리가 그에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의 눈에 그 자리가 찾아갈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상품 그 자체이며, 마지막 몇 마디는 값비싼 진열품 앞을 지나가는 가난뱅이에게 상품이 속삭이는 말의 개념을 상당히 정확하게 제시한다. 진열품들은 가난뱅이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 하지 않는다. 진열품들은 그 안에 파고들지 않으며, 그 둘 사이에는 ‘감정 이입’이 없다.²³⁾

박노해, 황지우, 장정일과 같은 시인들에게서 “시적인 것”을 포착하는 작업이 상품체험과 엄밀하게 분리해내기 어려울 만큼 겹쳐있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시적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시인의 예민한 영혼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이 머물 장소를 발견하는 상품의 예민한 영혼과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양상은 물론 제각각이다. 상품의 영혼은 가난뱅이에게 감정 이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뿐이다. 가난한 노동자-시인에게 값비싼 상품의 영혼은 침묵하고 그 대신 “싸구려 상품”들이 속삭인다. 「손무덤」에서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면서 동시에 포위하고 있는 상품세계의 모순이 적대관계의 발견과,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개된다면, 「가리봉 시장」에서는 상품세계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소외와 그로 인한 적대의 가능성은 “싸구려 상품”의 속삭임에 의해서 달래진다.

하루 14시간
손발이 통통 붓도록
유명브랜드 비싼 옷을 만들어도

23) 발터 벤야민, 같은 책, 108면.

고급오디오 조립을 해도
우리 뚫은 없어,
우리 손으로 만들고도 엄두도 못내
가리봉 시장으로 몰려와
하청공장에서 막 뽑아낸 싸구려 상품을
눈부시게 구경하며
이번 달엔 큰맘 먹고 물색 원피스나
한 벌 사야 겠다고 다짐을 한다

앞판 시다 명지는 이번 월급 타면
켄터키치킨 한 접시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마무리 때리는 정이는 2,800원짜리
이쁜 샌달 하나 보아둔 게 있다며
잔업 없는 날 시장가자고 손을 꼽는다.
— 박노해, 「가리봉 시장」 일부²⁴⁾

앞에서 다룬 상품에 대한 벤야민의 논의에서 상품들은 실제로는 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 쉬지 않고 속삭인다. “상품은 언뜻 보면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궤변과 신학적 중얼거림 (Mucken)으로 가득 찬 매우 기묘한 물건임을 알게 된다.”(마르크스)²⁵⁾ 그렇다면 “이쁜 샌달 하나 보아둔 게 있다며 잔업 없는 날 시장가자”는 말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이쁜 샌달”은 “마무리 때리는 정이”에게 속삭이고 그녀는 화자에게 재잘거리며 시인은 그 말들을 듣고 그 관계들을 포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단일한 언어주체라기보다는 상품의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어의 연쇄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다스러운 말의 연쇄 못지않게 그것과는 상반되는 침묵과 은폐가 존재한다. 싸구려 상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말을 건네지만 “유명브랜드 비싼 옷”과 “고급오디오”는 그것을 만든 노동자에게 속삭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24)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42면.

25)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上, 비봉출판사, 1991(개역1쇄), 90면.

말하지 않는다. 상품이 말하는 것과 상품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언어로 포착할 때 박노해라는 노동자-시인이 출현한다. 이 글의 서론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이 ‘상품들의 백일몽’과 맞닿아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되어있다. 황지우는 “시적인 것”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들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텍스트와 콘텍스트로 되어 있다.²⁶⁾

실증주의적 시 읽기(신비평도 그 한 예겠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인 것은 씌어진 것과 씌여지지 않은 것, 텍스트와 침묵의 사이에 있기 때 문입니다.²⁷⁾

박노해, 황지우, 장정일 등이 추구했던 “시적인 것”이 상품체험과 겹쳐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기가 함께 뒤엉켜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상품의 속삭임에 사로잡히는 것,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사물(상품)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비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상품들의 영혼이 속삭이는 “형이상학적 귀변과 신학적 잔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상품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언어가 관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적인 것”이 성립한다고.

IV. 결론을 대신하여

재빠른 인상 포착과 즉각적인 환기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광고와 시는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광고와 시가 노리는 환기효과는 우리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을 통과하면서 발효된다. 그것은 우리의 반성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반성적(前反省的)으로 작용한다. (...중략...) 시인이

26) 황지우, 앞의 책, 16면.

27) 황지우, 앞의 책, 39면.

란 언어 이전의 어떤 내밀한 내용을 언어로 통화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상형성과 환기의 기능적 관계에 있어서 시가 다양하고 열린 관계를 갖는 것과는 달리, 광고는 그 인상형성을 오직 구매욕구만을 환기시키도록 계산되어 있다. 광고가 환기시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것이 인 상지우는 제품을 사고 싶도록 하는 것 뿐이다.²⁸⁾

광고가 황지우나 장정일은 물론 박노해의 작품에서 또한 빈번하게 “시적인 것”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광고는 상품들의 수다—“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증얼거림”—를 극대화한다. 광고는 상품들이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그것이 말하려는 것만을 강화한다. 인용문에서 황지우는 “시인이란 언어 이전의 어떤 내밀한 내용을 언어로 통화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인 혹은 시적인 것이 침묵(“언어 이전의 어떤 내밀한 내용”)과 관계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노해와 황지우 장정일은 모두 상품들의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속삭임에 사로잡힌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시적인 것”은 이러한 상품체험과 밀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있지만, 동시에 상품들이 은폐하고 말하지 않는 것, 즉 상품들의 침묵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상품들의 수다와 상품들의 침묵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이 “시적인 것”을 성립하게 만들고, 양자를 매개함으로써 시인의 언어는 그 역할과 힘을 강력하게 발휘했던 것일지 모른다.

박노해에게 이 긴장을 포착해내고 지탱하는 힘은 사회주의의 언어와 노동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황지우와 장정일은 각자 나름대로 박노해와 그 이름이 상징하는 사회적 운동의 자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또한 황지우에게는 1980년 5월 광주가, 장정일에게는 지배적인 삶의 양식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룸펜-시인의 경험 이 상품들의 침묵을 발견하는 데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긴장 혹은 갈등은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박노해와 황지우는 낭만적인 서정시의 세계로 자리를 옮겼고, 장정일은 소설가로 변신했다. 무엇보다도 침묵과 침묵을 만들어냈던 기존의 억압들이 그 형태와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다. “광주사태”는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고, 1980년대를

28) 황지우, 「시와 광고」, 앞의 책, 289면.

들끓었던 사회적 운동들은 이른바 87체제라는 속에서 수렴되었으며, 대항품행(counter-conduct; contre-conduite)은 1990년대에 중반 이후에 이르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처럼 광고되기 시작했다. 때때로 ‘변질’이나 ‘전향’이라고 까지 이야기되어왔던 이들의 변신은 이 논문이 주목하고자하는 지점이 아니다. 침묵을 만들어내는 억압의 방식과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언어와 사람들이 맺는 관계—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침묵이 긴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지점에 주목해야한다. “시적인 것”이란 바로 그 지점을 드러내고 포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투고일: 2024.01.28

심사일: 2024.03.06

게재확정일: 2024.03.28

참고문헌

-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 장정일, 『햄버거에 대한 명상』, 민음사, 1987
- _____,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 _____, 『주목을 받다』, 김영사, 2005
- 황지우, 『새들도 世上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 _____,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 한마당, 1986
- 게오르크 루카치 저, 박정호·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2005(4판)
- 발터 벤야민 저, 김영옥·황현산 역,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4권, 도서출판 길, 2010
-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上, 비봉출판사, 1991(개역1쇄)
- 강동호, 「시적인 것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황지우의 시론(詩論)에 기대어」, 『사이』 9, 국제 한국문학문화비교학회, 2010
- 김형중, 「응답하라, 1983-박노해, 황지우, 백낙청의 시대」, 『문학과 사회』 2017년 봄호 제 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문학과지성사
- 박지영, 「‘현장’의 노래, ‘광장’의 시: 1980~90년대 초반 노동자문예운동과 시쓰기」,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7
-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17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6
- _____, 「“여공문학” 또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밤」, 『상허학보』 53, 상허학회, 2018
- 장성규,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 정한아, 「시적인 것의 실재론이라는 스캔들 -황지우 시론 연구」(1), 『사이間SAI. Vol.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 _____,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2014년 봄호(통권 106호), 역사비평사, 2014
- 허준행, 「1980년대 초 ‘시와 정치’, ‘시의 정치’라는 사건의 단면 동인지 시와 경제 연구」,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7

Commodities and "the Poetic" : On the works and it's horizon of Korean modern poets(Park-No-Hae, Hwang-Ji-Woo, Jang-Jeong-Il) in 1980's

Kim, Su-rim

The first debut of worker-poet Park, No-hae who was represented 1980's working-class literature and movement made at 1983 non-periodical publication called "Poem and Economy" vol.2. In this so called 'Mook' publication, Hwang, Ji-woo's poem works are also can be found. Jang, Jeong-il also made his debut by 'Mook' publication and these three poets published their first books each between 1983 to 1987. They have been discussed in separat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nd discourse, despite of their contiguity in time(mid 1980's) and place(non-periodical publication movement)

Park, No-hae, Hwang, Ji-woo, Jang, Jeong-il, these three poets sought similar goal that claiming "anyone can write poetry" and "anything can be the poetic" in their own ways. As in Hwang, Ji-woo's expression, they had common ground for they "sought the poetic, not poem". "The poetic", which they sought, was intimately related to experience of commodities.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e poetic" and commodities are first thing to argue in this paper.

If this relations are true, it can be said that "Proletarian nights" in 1980's south korea were overlapped with 'the daydreams of commodities'.

Key Words : The poetic, Commodities, Labor commoditification, Proletarian nights

